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분석 :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Assessing the Relations Between Financial Statements, Financial Management
and Financial Satisfaction of Urban Households : Based on the System Theory

충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 金 純 美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Soon Mi, Kim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a path model that investigated the relations among financial statements, financial management, and financial satisfaction of urban households. For this purpose,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the system theory was suggested. Empirical tests' results showed some evidence has been provided that supported that conceptual framework. The level of living and gap between the level and standard of living measure were vital in the model investigating financial management and financial satisfact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f them on financial management, however there were many indirect effects that mediated through them, as well. Also, The financial management was accepted in the model investigating financial satisfaction.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it and indirect effect that mediated through the financial management.

*1992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I. 문제의 제기

현대사회의 가계는 인플레이션, 조세정책 등과 같은 경제적 변화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가계는 경제적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며 이와 관련된 생활표준의 수립과 함께 가족원의 능동적 역할변화를 고려하게 된다.

가계가 직면하는 재정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원의 요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 에너지 및 화폐 등의 부족 문제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자원이 부족한 가계는 현재의 소비수요와 재정적 목표간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며, 또 한편으로는 미래의 재정적 위험을 감소시키려 한다(Hefferan, 1982; Varcoe, 1990). 즉 가계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안정과 성장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관리방법을 개선하려고 한다. 현재 소비효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안정지향적 재무관리를, 그리고 미래 소비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성장지향적 재무관리를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선호적 측면에서 가계는 현재 소비수요와 미래 소비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상충적 상황에 직면하거나, 또는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격차에서 기인하는 불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가계는 각기 다른 재정문제와 재정적 목표, 그리고 자원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 고유의 재무관리를 수행하게 된다(Beuder, Owen & Hefferan, 1988; Danes, Rettig & Bauer, 1991).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정자원과 재정적 요구를 나타내는 재정상태, 생활수준 및 생활표준간의 격차, 재무관리, 그리고 재정적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은 가계의 재정문제를 하나의 체계적 흐름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기존연구는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단순한 이론검정,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정에 의한 재정상태 및 재무관리간의 관계등이 연구의 중심

이었으며, 특히 재무관리에 대한 연구는 각 영역의 특정부분을 기술적으로 다루었거나 또는 재무관리의 결정유형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Titus, Fanslow & Hira, 1989). 또 재정상태의 측정과 재무관리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재정상태와 관련변수간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Prather, 1990). 한편 생활수준 및 생활표준에 관한 연구는 각각을 다룬 연구가 소수 있을 뿐 재무관리와의 관계, 그리고 생활격차와 재정적 만족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Hafstrom & Dunsing, 1973).

이에 본 연구는 가계의 재정상태,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격차,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간의 관계를 체계론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경로모형을 통하여 체계론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체계론의 적용은 관계 및 상호작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이론적이거나 경험적인 설명의 기준을 제공하고 가족단위의 복합성을 통합적으로 조직화하는 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험적 분석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Heck, 1983).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의 재정자원과 재정적 요구,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 격차의 특성, 재무관리의 중요성 등을 파악하고, 현재의 재정상태를 개선하며 미래의 재정적 위치를 예측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시간선호적 측면에서 가계의 재정적 목표설정과 재정문제의 해결, 그리고 미래 재무계획을 위한 대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체계론의 개념틀

재무관리의 개념화는 가정자원관리모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자원관리개념은 Paolucci, Hall과 Axinn(1978), Gross, Crandall과 Knoll(1980), Deacon과 Firebaugh(1988) 등의 체계론, 그리고 체계론에 기초한 Avery와 Stafford(1991)의 계획적합성 이론과 같은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발달하여

왔다. 특히 Deacon과 Firebaugh가 제시하는 체계론은 가족자원관리의 각 변인간의 상호관계를 시간연속선상에서 제시해 줄 수 있고,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문제나 관리과정에 관련된 연구모형을 검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재무관리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Titus, Fanslow와 Hira(1989)는 체계론에 근거하여 가계의 재무관리의 기능을 파악하면서 목표 및 사건에 대한 요구와 자원의 투입, 재무관리의 변환과정, 그리고 만족으로 나타나는 산출 등을 체계요소로 설명하였다. 체계론적 접근에서 재정적 요구는 개인의 주관적 가치에 근거한 동기부여요소이며 재정자원은 재정적 요구의 만족수단이다. 재정자원과 재정적 요구로 구성되는 재정상태는 생활수준의 상태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생활수준은 생활표준과의 격차로 인하여 불만족을 경험하게 한다. 변환과정인 재무관리는 투입요소를 받아들여 계획과 수행, 통제를 하는 과정으로서 지속적인 적용 및 조절의 자기통제를 이루게 해준다. 또한 산출요소는 투입요소에 대한 요구의 충족과 자원의 변화로서, 재무관리의 변환과정을 거치면서 그 산출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론적 접근은 그 당위성을 갖게 된다.

2. 재정상태 및 생활표준과 생활수준간의 격차

가계의 재정상태는 재정자원과 재정적 요구의 두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재정자원을 살펴 보면, 재정자원의 한 극단은 현재소득과 축적자산 등의 재정자원이 극히 제한된 경우이며 다른 한 극단은 자원이 풍부한 경우이다. 이러한 재정자원의 이용가능성은 존재하는 재정자원량을 기준으로 측정되는데, 이때 가계가 실제로 이용하는 재정자원량은 물론,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재정자원량도 함께 측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풍부한 자산이나 소득을 지닌 가계는 복잡한 재정문제를 경험하는 반면, 제한된 자원을 지닌 가계의 재정문제는 단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며(Griffith, 1985), 재정적 요구에 의해서도 재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자원뿐 아니라 재정적 요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재정적 요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부모가정이나 재혼가정과 같은 가족구성은 일반 가정과 달리 복잡한 재정적 요구를 갖게 될 것이며, 자원관리에 대해 역기능적인 심리구조를 갖는다면 재정적 요구가 필요이상으로 증가되어 복잡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 양도세 등과 같은 규제적 환경, 소득, 자산, 부채 등에 관련된 위험요인과 취업기회나 투자기회 등의 경제적 조건도 재정적 요구를 변화시키게 된다. 이밖에 지식과 경험 등도 재정문제를 보는 시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별하거나 중요한 재정문제라도 이를 여러번 경험하였다면 이에 대한 재정적 요구가 그다지 크지 않겠지만, 경험이 적다면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도 재정적 요구를 크게 인지하게 될 것이다(Edmonson & Pasley, 1989).

재정상태의 파악을 위해서는 객관적 및 주관적 지표를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 객관적 지표가 보다 명확한 재정상태를 나타낸다면, 주관적 지표는 자료수집의 비용과 노력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분석에 효과적이다(Fletcher & Lorenz, 1984). 객관적 지표는 화폐소득, 일정기간의 소비지출, 소득-순자산, 순자산저량 등과 같은 재정자원을 통해 측정될 수 있으며(Davis & Helmick, 1985), 주관적 지표는 가계의 경제적 조건 및 재정자원의 관리에 관한 심리적 성향, 재정자원에 대한 노출 정도 인지 등과 같은 재정적 요구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Feldman, 1985).

재정자원과 재정적 요구간의 균형상태는 생활수준과 생활표준을 유도하게 된다. Davis(1945)는 생활수준 및 생활표준의 개념을 구분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생활수준은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로 경험하고 즐기거나 또는 고통받는 것이다. 반면 생활표준은 절박하게 바라거나 또는 노력하는 수준으로서, 만일 생활표준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좌절을 경험하지만 생활표준에 도달하는데 성공하면 만족을 느끼게 된다(Fitzsimmons & Williams, 1973; Deacon & Firebaugh, 1988). 이처럼 가정내 변화를 위한 중요한 동기요소중의 하나가 생활표준과 생활수준간의 격차에서 기인된 불만족이라는 점에서 생활수준 및 생활표준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생활수준 및 생활표준에 대한 기존연구는 각각의 개념(Schlater, 1970; Hefferan, 1971; Hahn, 1972; Hafstrom & Dunsing, 1973)이나 재무관리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생활수준 및 생활표준 개념, 그리고 영향요인(Danes & Morris, 1989)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활수준 및 생활표준간의 관계(Danes & Morris, 1989; Danes, Rettig & Bauer, 1991)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생활격차 개념은 그것이 개인 및 가계의 재무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생활 격차에 대한 이론적 해석은 개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과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사이의 격차에 대한 인지가 갖는 기능을 설명해주며, 만족은 인지된 격차의 함수이다(Danes, Rettig & Bauer, 1991).

3. 재무관리

가계의 재정상태, 생활수준 및 생활표준에 대한 파악은 재정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규명을 통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재정적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재무관리가 유도된다(Vermunt, Spanss & Zorge, 1989).

Titus, Fanslow와 Hira(1989)는 체계적 접근방법으로 가계의 재무관리를 다루면서 변환과정이 실제적인 재무관리로 구성되며 이러한 활동의 수행은 재정적 목표의 달성과 자원극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재무관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영역, 과정, 그리고 결정유형에 대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재무관리는 구매, 소비, 생산, 공급 등의 경제적 기능과 금융수단의 화폐기능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움직이며, 이러한 기능에 따라서 재무관리의 영역은 금전관리, 저축관리, 지출관리, 자산관리로 구성되거나 소득, 저축, 차입, 대출, 보험,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Ferber, 1973). 한편 재무관리체계의 과정은 행동원리의 시간적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획 및 수행이나 계획 및 수행외에 평가 과정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시 표준과 전략의 측면으로 구분된다(Beutler & Herrin, 1987). 그밖에

재무관리의 결정유형은 재무관리과정의 수행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법으로서 적응 및 조절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Mullis & Schnittgrund, 1982; Voyannoff, 1983; Godwin & Carrol, 1986; Davis & Weber, 1990; Scannel, 1990).

그러나 재무관리의 결정유형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개인 및 가계의 인지유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개인 및 가계가 일정한 재정적 목표를 가질 때, 이에 따라 규범적인 재무관리를 수행하고자 할 것이며, 특별히 장기적인 재정적 불안정을 인지하는 경우 계획적인 재무관리전략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무관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지유형으로서 초기에는 통제소재개념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재무관리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인지개념을 범주화한 Harrison과 Bramson(1982)의 Inquiry Modes Questionnaire(InQ), 그리고 InQ로 작성된 FDMSI(Financial decision making styles of individuals)(Rettig & Schulz, 1991) 등과 같은 조사도구들이 개발되어 새로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4. 재정적 만족 및 미래 재무계획

만족은 바램이나 욕구에 대한 충족감이나 희열이며, 불만족은 기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이나 상태이다. 물론 만족과 불만족의 개념을 서로 분리된 개념으로 보거나 만족에서 불만족에 이르는 연속적 개념으로 보는 두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연속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재정적 만족은 개인 및 가계가 원하는 재정적 만족수준과 실제적인 재정적 만족간의 차이로 측정(Diener, 1985)될 수 있으며, 재정자원의 제약과 재정적 요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가계가 재정자원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자신이 기대하는 생활표준보다 낮은 생활수준을 수행해야 하므로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격차를 크게 느낄 수 있으며, 생활격차에 대한 불만족 또한 심각하게 된다(Davis & Helmick, 1985).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격차에 대한 평가는 재정적 요구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생활수준이 같은 두 가계에 있어서 생활표준이나 재정적 요구에 부여하는 중요성 정

높을수록 재무관리 능력이 높다.

재정적 만족 문항은 Lown과 Ju(1992)의 연구를 기초한 6문항(Cronbach's $\alpha=.904$)으로 구성하였는데, 재정적 만족 수준은 6점에서 24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적 만족수준이 높다. 미래의 재무계획(Cronbach's $\alpha=.706$)은 Mugenda, Hira와 Fanslow(1991)의 연구를 기초한 3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미래 재무계획 점수는 3점에서 12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계획 능력이 높다.

2.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 등에 따라 유의적 표본추출을 하였다. 1993년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152부를 배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분석후 일부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는 6월 14일부터 26일까지 700부를 배부하였으며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624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PC SAS Package Program(Ver 6.04)을 이용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과 재정상태를 알기 위해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Scheffé 검정을 하였다.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적률상관관계 및 중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하였으며, 이때 중회귀분석에 대한 기본가정은 잔차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재정상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41.69세이며, 평균교육연수는 13.64년으로 고졸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조사대상자의 26.6%가 취업주부였으며, 그중 단순직·기능공이 20.75%, 자영업이 25.79%, 사무직·기술직이 38.99%, 그리고 관리직·전문직이 14.47%였다.

재정자원을 보면, 월평균소득액이 191.9만원, 월평균지출액이 132.1만원이었으며 월평균소득액이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624)

인구통계적 변수	집단	빈도 ⁺	%	재정자원및 재정적요구	집단	빈도 ⁺	%
연령	20-29세	77	12.3	월 평균 소득액 (만원)	≤100	147	27.6
	30-39세	224	35.9		100< ≤150	140	22.4
	40-49세	164	26.3		150< ≤200	126	20.2
	50-59세	108	17.3		200< ≤300	109	17.5
	60세 이상	51	8.2		300< ≤400	49	7.9
교육수준	국졸 이하	37	5.4	400<	28	4.5	
	중졸	56	9.0	월 평균 지출액 (만원)	≤50	85	13.6
	고졸	198	31.9	50< ≤90	145	23.2	
	대졸	286	46.1	90< ≤130	180	28.8	
	대학원 이상	47	7.6	130< ≤200	153	24.5	
직업	전업주부	438	73.4	200<	61	9.8	
	취업주부	159	26.6	금전제약	제약이 많음	80	12.8
	-단순직·기능공	(33)	(20.7)	중간	427	68.4	
		-자영업	(41)	(25.8)	제약이 없음	117	18.8
			-사무직·기술직	(62)	(39.0)	재정적 불안정	불안정
-관리직·전문직	(23)	(14.5)	불안정	중간	285	45.7	
				안정	264	42.3	

⁺ 각 항목의 빈도차이는 결측값에 의한 것임

표 2.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재정상태

(N=624)

변 수	집 단	빈도 ⁺	월평균소득액(만원)		월평균지출액(만원)	
			평 균	Scheffé	평 균	Scheffé
연 령	20-29세	77	141.64		83.59	
	30-39세	224	190.83	@	128.47	@
	40-49세	164	198.10	@	140.51	@
	50-59세	108	223.01	@	165.67	@ @
	60세 이상	51	186.65		122.45	@
			F=5.99***		F=11.56***	
교육수준	국졸	37	135.91		75.44	
	중졸	56	146.76		117.50	
	고졸	198	178.65		128.05	@
	대졸	286	205.96	@ @	141.95	@
	대학원 이상	47	234.29	@ @	147.28	@
			F=7.40***		F=5.84***	
직 업	주부	438	184.20		133.35	
	단순직·기능직	33	136.72		77.12	@
	자영업	41	191.20		108.97	
	사무직·기술직	62	226.56	@	137.93	@
	관리직·전문직	23	328.38	@ @ @ @	197.61	@ @ @
			F=11.42***		F=8.50***	
변 수	집 단	빈도 ⁺	금 전 제 약		재정적 불안정	
			평 균	Scheffé	평 균	Scheffé
연 령	20-29세	77	12.66		29.34	
	30-39세	224	12.46		30.80	
	40-49세	164	12.39		29.67	
	50-59세	108	12.18		29.31	
	60세 이상	51	13.16		28.48	
			F=1.41		F=1.75	
교육수준	국졸	37	11.16		25.80	
	중졸	56	11.43		27.19	
	고졸	198	12.19		29.51	
	대졸	286	12.92	@ @ @	31.18	@ @
	대학원 이상	47	13.28	@ @	29.94	
			F=8.94***		F=7.87***	
직 업	주부	438	12.61		30.02	
	단순직·기능직	33	10.18	@	27.66	
	자영업	41	11.78		29.30	
	사무직·기술직	62	12.28	@	31.30	
	관리직·전문직	23	14.35	@ @ @ @	31.95	
			F=11.41***		F=1.98	

⁺ 각 항목의 빈도차이는 결측값에 의한 것임

*p<.05, **p<.01, ***p<.001

표 3. 변수들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N=624)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연령	—											
2.교육수준	-.509 ^{***}	—										
3.직업	-.104 [*]	.134 ^{**}	—									
4.월평균소득액	.143 ^{**}	.260 ^{***}	.197 ^{***}	—								
5.월평균지출액	.186 ^{***}	.184 ^{***}	.057 ^{***}	.580 ^{***}	—							
6.금전제약	.002 ^{***}	.233 ^{***}	-.004 ^{***}	.391 ^{***}	.290 ^{***}	—						
7.재정적불안정	-.081 ^{***}	.278 ^{**}	.130 [*]	.371 ^{***}	.242 ^{***}	.519 ^{***}	—					
8.생활수준	.061 ^{***}	.219 ^{***}	-.025 ^{***}	.282 ^{***}	.329 ^{***}	.485 ^{***}	.369 ^{***}	—				
9.생활격차	.023 ^{***}	-.100 [*]	-.020 ^{***}	-.178 ^{***}	-.177 ^{***}	-.225 ^{***}	-.186 ^{***}	-.281 ^{***}	—			
10.재무관리	-.101 [*]	.147 ^{***}	-.043 ^{***}	.087 ^{***}	.041 ^{***}	.244 ^{***}	.164 ^{**}	.056 ^{**}	-.117 ^{**}	—		
11.재정적만족	.110 ^{**}	.149 ^{***}	-.023 ^{***}	.379 ^{***}	.255 ^{***}	.668 ^{***}	.473 ^{***}	.472 ^{***}	-.200 ^{***}	.254 ^{***}	—	
12.미래재무계획	.148 ^{***}	.094 [*]	.003 ^{***}	.218 ^{***}	.169 ^{***}	.461 ^{***}	.315 ^{***}	.314 ^{***}	-.099 [*]	.211 ^{***}	.550 ^{***}	—
평균	41.69	13.64	1.88	191.9	132.1	12.47	29.88	50.37	9.09	196.1	14.16	6.25
표준편차	10.39	3.37	1.60	105.0	84.4	2.58	6.59	14.27	10.46	20.5	3.05	2.38

*p<.05, **p<.01, ***p<.001

표 4. 경로모형의 단계별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β)							
	월평균 소득액	월평균 지출액	금전 제약	재정적 불안정	생활 수준	생활 격차	재무 관리	재정적 만족
생활수준 R ² =.226 F = 22.030 ^{***}			.336 ^{***}	.133 [*]				
생활격차 R ² =.066 F = 4.150 ^{**}	-.137 [*]					-.164 ^{**}		
재무관리 R ² =.053 F = 2.476 [*]			.196 ^{**}		-.136 [*]	-.085 [*]		
재정적 만족 R ² =.406 F = 24.934 ^{***}	.180 ^{**}		.377 ^{***}		.205 ^{***}		.093 [*]	
미래 재무계획 R ² =.250 F = 10.471 ^{***}								.393 ^{***}

*p<.05, **p<.01, ***p<.001

미래 재무계획 = $a + \sum_{i=1}^8 b_i X_i$ b_8 = 재정적 만족

1차 회귀분석 결과, 생활수준 회귀방정식에서는 금전제약, 재정적 불안정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변수들의 설명력은 22.6%였다. 또한 생활격차 회귀방정식에서는 월평균소득액과 생활수준 변수가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6.6%였다.

재무관리 회귀방정식에서는 금전제약, 생활수준 및 생활격차 등의 변수가 유의했으나 설명력은 5.3%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적 만족의 회귀방정식에서는 월평균소득액, 금전제약, 생활수준 및 재무관리 변수가 유의했으며 변수들의 설명력은 40.6%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래 재무계획의 회귀방정식에서는 재정적 만족만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5.0%였다.

4. 경로모형 설정을 위한 제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1차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경로모형의 설정을 위한 최종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생활수준 회귀방정식에서 금전제약($\beta = .371$), 재

정적 불안정($\beta = .167$)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변수들의 설명력은 23.2%로 나타났다. 즉 금전제약이 적을수록, 재정적으로 안정될수록 생활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또한 생활격차 회귀방정식에서는 생활수준($\beta = -.239$)과 월평균소득액($\beta = -.114$) 변수가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활수준이 낮다고 인지할수록, 월평균소득액이 적을수록 생활격차를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무관리 회귀방정식에서는 금전제약($\beta = .3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생활수준($\beta = -.190$), 생활격차($\beta = -.084$)의 순이었다. 즉 금전제약이 적을수록, 생활수준이 낮다고 인지할수록, 생활격차가 적다고 인지할수록 재무관리 능력은 높았다. 특히 생활격차가 재무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생활격차가 재무관리 방법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한 Danes, Rettig와 Bauer(1991)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재정적 만족의 회귀방정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금전제약($\beta = .454$)이었으며, 생활수준($\beta = .208$), 월평균소득액($\beta = .123$), 그리고 재무관리($\beta =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설명

표 5. 총경로효과

종 속 변 수	독립변수	인과적효과		비인과적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생활수준 $R^2 = .232$ $F = 58.961^{***}$	금전제약	.371***		.114	.485***
	재정적 불안정	.167**		.202	.369***
생활격차 $R^2 = .085$ $F = 22.339^{***}$	월평균소득액	-.114*		-.064	-.178***
	생활수준	-.239***		-.042	-.281***
재무관리 $R^2 = .085$ $F = 12.783^{***}$	금전제약	.301***	.076	-.133	.244***
	생활수준	-.190***	.033	.213	.056
	생활격차	-.084*		-.033	-.117**
재정적 만족 $R^2 = .445$ $F = 82.766^{***}$	월평균소득액	.123**	.005	.269	.397***
	금전제약	.454***	.484	-.270	.668***
	생활수준	.208***	.022	.242	.472***
	재무관리	.110**		.144	.254***
미래 재무계획 $R^2 = .303$ $F = 251.136^{***}$	재정적 만족	.550***			.550***

* $p < .05$, ** $p < .01$, *** $p < .001$

력은 44.5%였으며, 금전제약이 적을수록, 생활수준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월평균소득액이 많을수록, 재무관리 능력이 높을수록 재정적 만족이 높았다. 이 결과는 금전부족이 재정적 복지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Wilhelm과 Varcoe(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미래 재무계획의 회귀방정식에서는 재정적 만족 ($\beta=.550$) 변수만이 유의하였으며 그 설명력은 30.3%였다. 즉 재정적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미래 재무계획을 만족스럽게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정적 불만족이 미래 재무계획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Mugenda, Hira와 Fanslow (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이들의 연구에서 재무관리가 미래 재무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서, 재정자원인 월평균소득액은 생활격차와 재정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지출액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재정적 요구인 금전제약은

생활격차와 미래 재무계획을 제외한 모든 회귀방정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재정적 불안정은 생활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재무관리 변수가 재정적 만족의 회귀방정식에 포함될 때, 모델에서의 상대적 영향력은 적으나 설명력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는 재무관리 변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총경로효과와 경로모형의 설정

최종 회귀분석의 결과로서, 표 5는 독립변수들의 인과적 효과와 비인과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설정한 경로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생활수준에 대한 금전제약과 재정적 불안정의 총효과는 정적 상관($r=.485$)($r=.369$)을 보였다. 반면에 생활격차에 대해서 월평균소득액과 생활수준의 총효과는 모두 부적 상관($r=-.178$)($r=-.281$)을 보였으며, 또한 부적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재무관리에 대하여 금전제약의 총효과는 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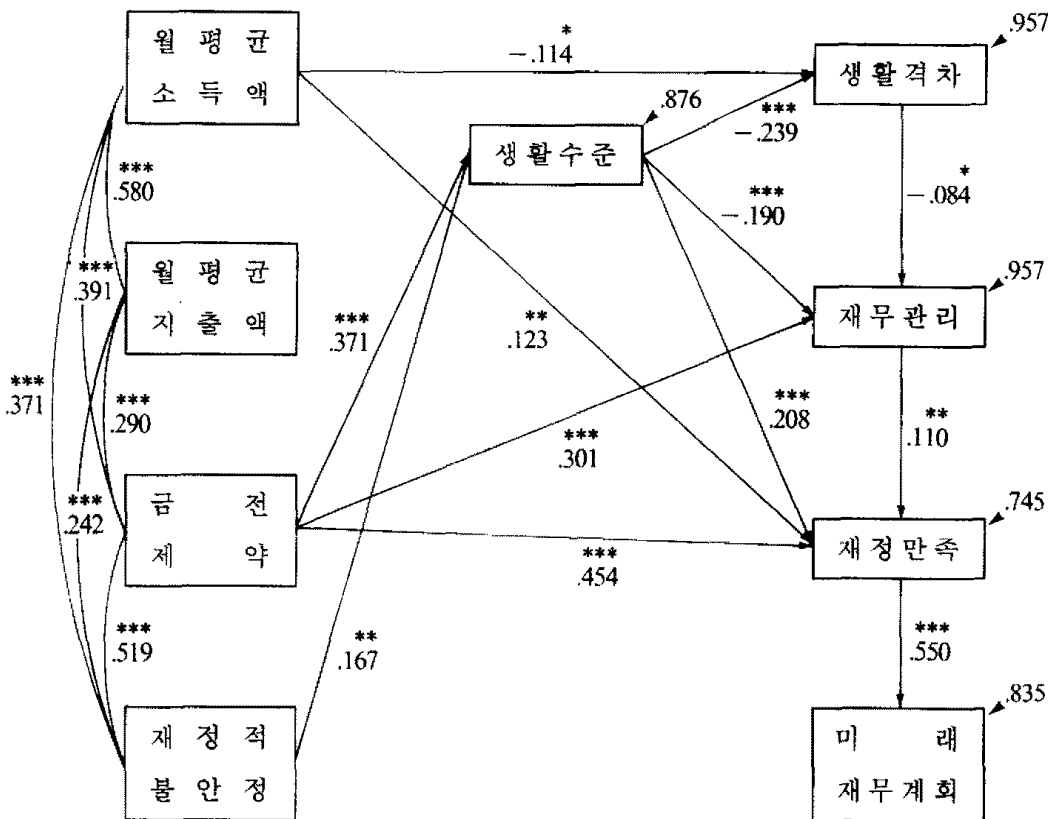


그림 2. 경로모형

상관($r=.244$)과 약한 간접효과(.076)를 보였으며 생활격차의 총효과는 부적 상관($r=-.117$)을 나타냈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총효과($r=.056$)는 매우 약했으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재정적 만족에 대한 월평균소득액의 총효과는 정적 상관($r=.397$)을 보였으며 약한 간접효과(.005)를 나타냈다. 또한 금전제약의 총효과도 강한 정적 상관($r=.668$)을 보였는데, 그것은 강한 직접효과(.454)와 강한 간접효과(.484), 비인과적 부적효과(-.270)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수준의 총효과도 강한 정적 상관($r=.472$)을 나타냈는데 그 중 비인과적 효과(.242)가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재무관리의 총효과도 정적 상관($r=.254$)을 나타냈다.

한편 미래 재무계획에 대한 재정적 만족의 총효과도 강한 정적 상관($r=.550$)을 나타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계의 재정상태,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격차,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간의 관계를 체계론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경로모형을 통하여 체계론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 체계론에 의해 제시된 개념적 틀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요소인 재정자원 및 재정적 요구중 재정적 요구변수만이 생활수준에 직접 효과를 주었으며, 월평균소득액과 생활수준은 생활격차에 직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전제약과 생활수준, 그리고 생활격차는 변환요소인 재무관리에 직접 효과를 주었는데, 그중 금전제약은 생활수준과 생활격차를 통해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재무관리는 산출요소인 재정적 만족에 직접 효과를 나타냈으며, 재정적 만족에 직접 효과를 나타낸 투입요소로는 월평균소득액, 금전제약, 생활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재정적 만족은 다시 미래의 재무계획 수립에 직접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재정자원과 재정적 요구, 생활수준 및 생활표준간의 격차, 재무관리의 특성과

중요성 등을 비교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재정적 만족에 대한 재무관리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시차적 문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 재무계획에 대한 투입요소로서의 재정적 만족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체계요소간의 인과적 관계 및 개념적 틀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체계론에 근거하여 재정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재정자원 변수 및 재정적 요구 변수를 다양하게 다루지 못하였으며, 또한 기존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제시된 생활격차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제한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생활격차에 대해 인지하는 사회문화적 속성이나 측정도구상의 문제, 또는 모델 자체의 설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인지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체계의 환원과정을 시차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재정적 만족과 미래 재무계획을 단순히 한 차원에서 조망하였다는 점 때문에 해석상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보완된다면, 재정문제를 시간선호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분석하며, 효율적인 재무관리 방법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김은희(1992). 자원제약에 따른 가정생산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2) Avery, R. & Stafford, K.(1991). Toward a scheduling congruity theory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Lifestyles : Family & Economic Issues* 12(4), 325-344.
- 3) Berry, R. & Williams, F.(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 A path analytic approach. *JMF* 49, 107-116.
- 4) Beutler, I.F., Owen, A. & Hefferan, C.(1988). The boundary question in household production : A systems model approach. *HERJ* 16, 267-278.
- 5) Beutler, I.F. & Herrin, D.A.(1987). Environmental

- context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JCSHE* 11, 295-304.
- 6) Danes, S.M. & Morris, E.W.(1989). The factors affecting a family's plan to change its financial situation. *Lifestyles : Family & Economics Issues* 10(3), 205-215.
 - 7) Danes, S.M., Rettig, K.D. & Bauer, J.W.(1991). The role of perception in the intention to change the family financial situation. In S.M. Danes(Ed.). *The proceedings of AFCPE*, 82-99.
 - 8) Danes, S.M., Rettig, K.D. & Bauer, J.W.(1991). Locus of control, gap between the standard and level of living and satisfaction with the gap : Path model replication. In V. Haldeman(Ed.). *The proceedings of ACCI*, 15-21.
 - 9) Davis, E.P. & Weber, J.A.(1990). Patterns and obstacles to financial management. *FC & P* 1, 41-51.
 - 10) Davis, E.P. & Helmick, S.A.(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 *HERJ* 14(1), 123-131.
 - 11) Edmondson, M.E. & Pasley, K.(1989). Financial management and remarriage : A comparison of males' and females' attitudes and behaviors. In I.F. Beutler(Ed.). *The proceedings of AFCPE*, 118-120.
 - 12) Feldman, F.E.(1985). Enhancing career competence-Know your client : The family in today's world. In G. Langrehr(ed.) *The proceedings of FC & PE*, 31-42.
 - 13) Ferber, R.(1973). Family decision making and economic behavior, In E.B. Sheldon(Ed.). *Family Economic Behavior : Problem and Prospects* 29-57. Philadelphia : Lippincott.
 - 14) Fletcher, C.M. & Lorentz, F.O.(1984). Structural influences of economic relationships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indicators of economic well-being. *SIR* 16, 333-345.
 - 15) Godwin, D. & Carrol, D.D.(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 and behavior of husband and wives. *JCSHE* 10, 77-96.
 - 16) Griffith, R.(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 A modest beginning. In G. Langreher (Ed.). *The proceedings of AFCPE*, 123-131.
 - 17) Hafstrom, J.L.& Dunsing, M.M.(1973). Level for living :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ERJ* 2(2), 119-132.
 - 18) Heck, R.K.(1983). A preliminary test of family mangement research model. *JCSHE* 6; 265-276.
 - 19) Hefferan, C.(1982). Determinant and pattern of family saving. *HERJ* 11(1), 47-56.
 - 20) Lown, J.M. & Ju, I.S.(1992). A model of credit use and financial satisfaction. *FC & P* 3, 105-124.
 - 21) Mugenda, O., Hira, T. & Fanslow, A.F.(1991). Influence of net worth, financial planning, and satisfaction with future plans on households'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In S.M. Danes(Ed.). *The proceedings of AFCPE*, 141-155.
 - 22) Mullis, R.J. & Schnittgrund, K.P.(1982). Budget behavior : Variance over the life cycle of low income families. *JCSHE* 6, 113-120.
 - 23) Prather, C.G.(1990). The ratio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e statements :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C & P* 1, 53-70.
 - 24) Rettig, K.D. & Schulz, C.L.(1991). Cognitive style preferences and financial management. *FC & P* 2, 25-54.
 - 25) Scannel, E.(1990). Dairy farm families' financial management. *FC & P* 1, 133-146.
 - 26) Titus, P.M., Fanslow, A.M. & Hira, T.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ERJ* 17(4), 309-317.
 - 27) Varcoe, K.P.(1990).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s. *JCSHE* 14, 57-69.
 - 28) Vermunt, R., Spanns, E. & Zorge, F.(1989), Satisfaction, happiness, and well-being of dutch student. *SIR* 21, 1-33.
 - 29) Voydannoff, P.(1983). Unemployment, family strategies for adoption. In C.R. Figley & H.I. McCubbin(Eds.). *Stress and the family : Coping with catastrophe* 90-102.
 - 30) Wilhelm, M. & Varcoe, K.(1991). Assessment of financial well-being : Impact of objective economic indicators and money attitudes on financial satisfaction and financial progress. S.M. Danes(Ed.). *The proceedings of AFCPE*, 184-201.